광주 '진월IC' 완공 40일 앞두고 대형 암초…개통은 언제

핵심 공정 옹벽설치 업체 중도 포기
소송시 '증거 보전' 이유 공사 제동
시, 대체업체 확보…2월 개통 노력

광주시 남구 주민들의 숙원인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핵심 공정을 맡은 업체의 중도 포기로 개통 일정에 변수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2월 개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공일까지 남은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업체와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돼 공기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남구 진월동 38-1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73억2000만원을 투입해 제2순환도로와 도심을 잇는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공사다. 총연장 940m(램프A 380m·램프B 560m) 규모로 지난 2020년 5월 착공해 내년 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의 핵심인 옹벽 설치를 담당한 하도급 업체 A사가 최근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허 자재인 'IBW패널' 납품과 설치를 맡은 A사는 지난달 12일 원도급사에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 수행 불가를 통보했고, 시와 원도급사는 수차례 이행 촉구 끝에 지난달 13일 하도급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사의 공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설계를 변경하고 대체 업체를 투입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월 개통을 장담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하다. 당초 준공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은 40여 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공법에 따른 설계 변경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재 수급부터 실제 시공까지 마쳐야 한다. 사실상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남은 공정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계약이 해지된 A사와의 분쟁 소지도 변수로 꼽힌다. 광주시에 따르면 A사 측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미 제작해 둔 패널에 대한 비용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는 검수가 완료된 8000만원 상당의 물량 외에 미검수 자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오히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장 증거 보전 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업체가 자금난이나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애초 선정 단계에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업체 측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미 대체 업체를 확보해 공사 재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회계과에 변경 계약을 의뢰하고 현장 시공을 서두르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의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부문 고용인원은 올해 3분기 1만6630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2만1827명)보다 23.8%(5197명)나 급감했다. 여수산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 국가산단에 불어닥친 고용한파…구직급여 신청자 2배↑

구직급여 신청자수 1만7000명
전년대비 고용인원 4.6% 줄어

전남 국가산단들의 올해 하반기 고용지표가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지역 성장동력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남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만71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8086명)보다 2.1배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구직급여 신청자는 0.7% 늘었고, 광주는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3분기 기준 전남 구직급여 신청자가 1만명을 넘은 건 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전남 주요 산업의 고용 위기 양상은 산업단지에서 더욱 눈에 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남 108개 산업단지(지난해 107개)의 고용인원은 8만4754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8만6647명)보다 2.2%(1893명) 줄었다.

누계 생산액은 지난해(68조4289억원)보다 4.6%(3조1710억원) 감소한 65조2579억원, 누계 수출액은 10.5%(26억7167만달러) 줄어든 228억2440만달러(33조5900억원)로 집계됐다.

여수와 광양, 영암 대불산단 등 전남 5개 국가산단의 고용 한파는 더 매섭다.

전남 국가산단 5곳의 올 2분기 기준 고용인원은 4만5468명으로, 전년(4만7648명)보다 4.6%(218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누계 생산액과 누계 수출액 감소율은 각각 6.7%, 11.4%로 전남 산단 전체 감소 폭을 웃돌았다.

전남 국가산단에서는 주력 산업의 고용인원 감축이 두드러졌다.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부문 고용인원은 올해 3분기 1만6630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2만1827명)보다 23.8%(5197명)나 급감했다. 여수시는 고용노동부의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분야 첫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달아 지정됐다.

같은 기간 영암 대불산단(외국인투자지역 포함)의 운송장비 부문 고용은 4233명에서 3467명으로, 18.1%(766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름을 올린 광양산단 철강산업 부문 고용인원은 8097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2.3%(192명) 줄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라며 "고용지표가 악화했으면 그것에 맞게 위 단계인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노년에도 적당한 운동은 꼭 필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

'노년이 되더라도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최근 운동하면서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바이글리칸'(Biglycan)이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과 지방간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임주현 연구원과 이유정 연구사 등이 쥐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데이터(전사체 오픈 데이터셋 및 혈장 단백체) 분석을 통해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근육 호르몬인 마이오카인 중 하나인 바이글리칸의 양이 노인의 근육과 혈액에서 크게 줄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젊은 쥐에 비해 노화된 쥐는 혈액 및 근육에서 바이글리칸 양이 감소되어 있었고, 노화된 쥐를 4개월간 운동 시킨 결과 근기능이 개선되고 바이글리칸 근육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된 바이글리칸이 간으로 이동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바이글리칸이 노화로 인한 근감소와 지방간을 동시에 완화하는 핵심 인자임을 확인했으며, 이번 결과가 향후 항노화 연구와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전략 마련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주현 연구원은 "운동을 해야 분비되는 바이글리칸이 근감소 억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사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어르신들의 질환, 근육상태, 노쇄정도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야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대중교통 타면 탈수록 더 돌려 받는다

정부 '모두의 카드'와 'G-패스' 연계 환급액 자동 적용

광주시민이 내년 1월부터 일정 금액 이상만 부담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전국 대중교통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탈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광주시는 16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 카드'와 시 자체 정책인 '광주 G-패스'를 연계해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액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통합 환급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가입자가 매달 지출하는 교통비가 정해진 환급 기준액을 넘길 경우,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다. 사실상 기준 금액만 내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액권' 개념이다.

시는 시민들이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두 제도를 하나로 묶었다.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월 이용액을 분석해 G-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 혜택이 더 큰 쪽을 알아서 적용해 준다.

환급 기준액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9세부터 39세 청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일반형 기준 월 5만원만 내면 된다. 40~64세 일반인은 5만5000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원이 상한선이다.

GTX 등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플러스형'은 이보다 기준액이 높다. 단 KTX나 항공, 고속버스는 제외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이하"을"이라 한다)는 2025년 12월 16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5년 12월 17일

"갑"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703호(보정동, 하이프라자)
대표이사 박 헌

"을"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79번길 26, 지하 1층(옥련동)
사내이사 한 권 희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3-6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73-6836 •백 운 651-1833 •봉 선 673-6836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신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 출장비용 |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